

“다람이 물자 동네 한바퀴 ~ 月”

병목안 채석장 철길 흔적을 따라서



안양의 도시 변천 이야기

□ 행정구역 변천 및 지명유래

문헌상에 등장하는 안양의 역사는 원삼국시대 이전 기록은 없다. 그러나 1989년 평촌지역 문화유적 조사시 석기시대의 각종 유물과 청동기시대의 지석묘가 발견되어 오랜된 주거 근거를 알 수 있다. 안양지역의 모체인 시흥군은 고구려시대에 일벌노현에 속했다가 934년 고려태조때 금주로 개칭되면서 금천(吟川)으로 불리웠다. 조선세조 즉위한 1456년 파천에 병합되었다가 정조19년에 시흥으로 개칭되었으며 1895년 고종32년에 시흥군으로 승격되었고 1914년 3월 1일 시흥, 안산, 파천의 3개군이 통합 시흥군이 되었다. 1949년 8월 14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면서 관원도시로 발돋움해 오다가 급격한 도시발달로 1973년 시로 승격되며 2000년에 2개구 31개 행정동과 7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었다. 1949년 8월 14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되면서 관원도시로 발돋움해 오다가 급격한 도시발달로 1973년 시로 승격되며 2000년에 2개구 31개 행정동과 7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었다.

- ▲ 475년(고구려 장수왕 6) 육록군에 속함.(박한,석수동은 일벌노현)
- ▲ 757년(신라 경덕왕16) 일벌노현에서 곡양현으로 바뀜.
- ▲ 940년(고려 태조 23) 파주(파천현이 금주현으로)
- ▲ 991년(고려 성종9) 부림 또는 부안으로 불리웠음.
- ▲ 1313년(조선 태종 13) 파천현으로 개칭
- ▲ 1414년(조선 태종 14) 파천현을 통합하여 금파현으로 개칭
- ▲ 1879년(고종 16)에 금천현(吟川縣)
- ▲ 1895년(고종 32)에 파천군
- ▲ 1914년 금산(吟山)-안산(安山)-파천(果川) 3군 통합 시흥군으로
- ▲ 1941년 10월01일 사이면 안양면(安養面)으로 개칭 안양 명칭
- ▲ 1945년 시흥군청이 영동포에서 안양면으로 이전해 유
- ▲ 1949년 08월14일 안양면이 안양읍으로 승격
- ▲ 1963년 01월01일 동면 신안양리와 서면 박달리 안양읍에 편입
- ▲ 1973년 07월0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
- ▲ 1992년 10월01일 만안구와 동안구로 설치
- ▲ 1991년 01월15일 평촌동이 평안동으로 분리
- ▲ 2004년 10월 현재 만안구 14개동 동안구 17개동

안양에 대한 최초의 인구자료는 영조 35년(1759)의 호구조사 기록인데 현재의 석수동, 박달동을 제외한 나머지 안양지역이 속한 하서면의 인구가 1,515명이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3,412명, 1925년 6,165명, 1935년 8,957명, 1936년 인구 9,234명이며 1941년(안양면 승격) 10,000명, 1949년(읍 승격) 20,021명, 1973년(시 승격) 111,075명이며 현재 573,296명(2019. 4. 30)이 거주하고 있다.

□ 안양에 마을은 언제 생겼을까?

안양이란 말을 공식적인 지명(地名)으로 사용한 기록은 조선 영조때 제작된 여지도서 금천현도(영조 35년-1759)와 정조 13년(1789)의 호구조사 기록으로 금천현(吟川縣) 현내면(縣內面)의 안양리(安養里)와 파천현(果川縣) 하서면(河西面)의 안양리(安陽里)가 자연부락 지명으로 등장한다.

조선시대 안양(安養)이라 하면 금천현 현내면의 안양리(安養里)를 의미한다. 현재의 안양지역과 관련하여 볼 때 석수동 일대로 안양사(安養寺)와 관계된 지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파천군 하서면 안양리(安陽里)는 역참인 안양역(安陽驛)이 있었던 현재의 안양역 주변으로 추정된다. 대한제국에서도 정부선친들의 임시정거장이 있던 곳이 안양정(安陽驛)이었다.

안양정과 안양역(安養驛站, 驛所)은 안양(安陽)과 안양(安養)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 안양(安養)으로 통일된다.

안양이란 지명을 활용해 작명한 기록은 정조 임금의 화산봉행(花山山行)을 위해 안양리에 건립한 안양행궁(安養行宮)이 있다. 행궁은 임금이 임시 머물 목적으로 건립한 별궁을 의미하며 정조 18년(1894년)에 지어졌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표석만이 안양일변가에 남아 있다.

안양(安養)이란 지명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05년 1월1일 개포동 영입을 시작한 정부선 친들의 안양역사 개설이다. 이때부터 호계리와 군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지역대표성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실제 안양역이 개통되기 이전에 안양지역 경계와 행정의 중심지는 호계사거리였다. 조선시대부터 군포장이 중심지 역할하셔도 군포초교를 하다가 안양역이 개통되면서 당시 현 호계도서단 인근에 있던 사이면사무소가 안양 일변가로 이주하고 이때부터 호계리와 군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당도 안양시장(구사당)으로 이전한다.

1898년 군포 공채동에서 안양리로 시립은 고 강주희(1883년생) 여사는 안양행궁 주변에 집들이 심어 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2005년 말 작고한 고 장혜순(1921년생, 전 안양시지정 자문위원장) 등이 생전에 증언한 바 있어 안양역 개통이 근대 안양의 시작인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안양에 일본사찰들이 거주하면서 농장과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안양은 안양천의 풍부한 수량과 서늘하고 일찍한 포도의 편익함과 주변의 산세 지형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병치 공장들과 농장과 휴식처, 군용지하 철도 레일용 자갈 채취 등에 눈독을 들인 곳이다. - 역설적으로 수탈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후 안양의 명칭은 1926년 공립시장으로 인가 받은 안양시장, 1927년 개포한 안양보통학교, 1930년 통합한 안양교회를 비롯 안양금융조합, 안양우체국, 안양구제소, 안양청년회, 안양소년회등한 등이 다른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로 확대된다.

1920년대 말, 3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이미 안양이란 명칭이 지역대표성을 가지면서 사이면(西面)은 1941년 10월 안양면으로 개칭되고 1949년과 1973년 각각 읍과 시로 승격될 후 현재 인구 60만 의 수도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남은 것들에는 고유의 바뀐 빛깔이 있다.

양짓말(양지마을)은 이 마을의 지세가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예로 부터 '양짓말'로 불리우던 곳으로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안양 최초의 공장인 안양산업사(安養産業社)란 회사가 들어섰고, 1940년대에는 비행기 공장, 1950년대에는 지역경제를 좌지우지한 금성방직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1970년대에는 양지동(陽地洞)으로 지금은 안양 3동이라 불리웠습니다.

안양 3동에는 광복 직전 아시아 학교가 설립되었고, 광복 직후에는 안양중학교(1948), 안양공고(1949)가 들어섬으로써 안양서초, 안양예고, 안양여상, 안양외고, 연성대학교 등 안양에서 학교들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이 합니다. 또 기록을 보면 양지동에는 채단식, 박두진, 김대규 등 여러 문인들이 살기도 했습니다.

골목길에 서면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 골목이 가지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지내는 이웃들의 정겨운 수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골목길 평상의 도란도란 이야기 등 골목길 속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참 많았는데 이전 도시 재개발, 재정비 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들이 정형하면서 도시 속에서 간간히 숨을 쉰 골목길은 점점 더 특별해지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걸다보면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빠른 시대의 흐름에 숨이 가쁠 때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옛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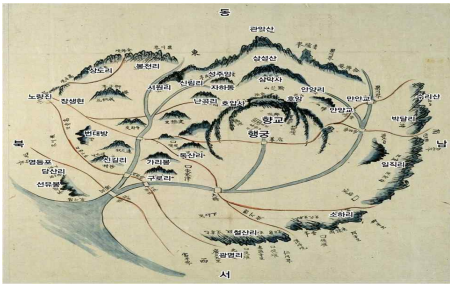
지도 한장 손에 들고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마을과 동네 깊숙히 들어가 골목을 거닐다 보면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는 건물들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마을 탐방의 매력과 감동은 주민들의 자잘한 손길과 마음씨를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같이 동네 한바퀴'를 돌면서 타인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골목 골목에 숨어있고 그 속에 녹아있는 주민들의 삶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지명의 뿌리가 1천100여 년 전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에서 발원한 것이 역사적인 유래이긴 하지만, 정조 임금이 능행차를 하면서 지은 안양행궁, 정부선 개동시 후원박재역사(御倉)를 개설하며 안양역으로 명명(옛 어른들이 전하는 말로로 안양역앞에 있는 미곡창 위에 안양문이라 적혀 있어 안양역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는 등은 역사 공부가 주는 큰 재미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중에서 원년 넘는 지명을 갖고 있는 것도 찾아보기 쉽지않은 사실이다.

□ 안양의 역사를 담아 기록한 사료집

- ▲ 1950년 금천지(吟川誌) ▲ 1988년 시흥군지(詩興郡誌) ▲ 1992년 안양시지(安養市誌)
- ▲ 2008년 안양시사(安養市史) ▲ 1996년 안양시지명유래집(재안양희) ▲ 1985년 안양의 유래(안양문화4, 안양문화원) ▲ 1991년 양지마을의 까치소리(이유구용, 안양3동) ▲ 안양학자료집(안양학연구소) ▲ 권보로 본 안양근대사연구(안양학연구소) ▲ 2012년 만안의 기억 등

□ 안양을 표시한 지도



1872년 경기도 시흥현 지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를 보면 중심에 시흥(현 서울 금천구)이 있을 정도로 중심지였으며 안양의 번방에 불과했다.

목 차

□ 안양의 도시 변천 이야기 -----	1
□ 병목안 채석장 철길 이야기 -----	5
□ 안양의 근대 발전을 가져온 안양역 개설 -----	10
□ 햇살 따뜻한 안양 3동, 양지동(陽地洞) 이야기 -	20
□ 조선직물 - 조선비행기 - 맹리단길 이야기 -----	27
□ 조선직물 주식회사(1938년 광고) -----	36
□ 맹리단길 표지석 -----	38
□ 기부 문화 근원지가 된 삼덕제지와 삼덕공원 -	42
□ 병목안 채석장과 시민공원 -----	44
□ 담배촌 입구 문동바위 이야기 -----	45
□ 극락정토 안양, 무속(巫俗) -----	46
□ 사라진 안양의 옛 동네 지명 -----	47
# 안양기억 찾기(안양의 옛 흔적과 숨은 이야기들) --	51

□ 역사 속 안양지역 주요 사건들

- ▲ 827년(신라 총덕왕 2년) 중초사 중추
- ▲ 900년(신라 효종왕 4년) 왕건이 삼정산을 지나다가 노승 농정(龍正)을 만난
- ▲ 940년(태조대) 안양사 칠층전탑 건립
- ▲ 1716년(숙종 42년) 동안구 호계동에 호계서원 건립
- ▲ 1795년(정조 19년) 만안포(경기도유형문화재38호) 건립
- ▲ 1905년 1월1일 정부선 개동 및 안양역 보통역으로 개장
- ▲ 1905년 11월22일(광무 9년) 원태주(元泰祐)지사 안양학교에서 이토 히로부미 무적
- ▲ 1914년 04월01일 파천군-시흥군-안양군이 시흥군으로 통합, 사이면(연장 조한구 일명)
- ▲ 1915년 12월01일 안양구제소 사이면 안양리에 개소
- ▲ 1917년 07월06일 사이면사무소를 호계에서 안양리로 위치 변경 인가
- ▲ 1924년 06월06일 사이면 안양리에 소방소 설치
- ▲ 1924년 12월29일 안양경찰서 주재소 개소 고시
- ▲ 1926년 01월28일 안양시장 시대동(현 안양1동)에 개설
- ▲ 1928년 08월18일 안양에서 영화가 처음 상영
- ▲ 1929년 08월30일 안양에 처음 전깃불 들어옴
- ▲ 1929년 12월20일 안양공립보통학교(안양초교) 개교
- ▲ 1932년 06월18일 안양공립민간(안양예술공원) 개장
- ▲ 1933년 10월01일 신가정(여성동아리 전신) 주회 제1회 전국여성 발품기 대회 개최
- ▲ 1934년 08월27일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삼층석탑 조선 보물로 지정
- ▲ 1938년 08월06일 정부선 철도 안양-군포 구간 복선공사 완료
- ▲ 1939년 01월07일 안양 전하 개동 축하회 열림
- ▲ 1939년 02월18일 안양리 임업시험장 개장
- ▲ 1941년 10월01일 사이면을 안양면으로 개칭
- ▲ 1944년 조선비행기공장 비행기 생산 시작(안양3동 현 대동 자리)
- ▲ 1948년 03월15일 안양 최초의 중학교인 안양중학교 개교
- ▲ 1949년 08월14일 안양읍이 안양읍으로 승격
- ▲ 1951년 12월 안양읍 청사 낙성(현 안양일변가)
- ▲ 1953년 03월 안양 최초의 극장 화단극장 개설
- ▲ 1954년 09월07일 안양 최초의 상영인 장태동시장 신식(구현우 신부 부임)
- ▲ 1956년 07월08일 안양에 대규모 영화관영소 착공
- ▲ 1973년 07월0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
- ▲ 1974년 08월15일 지하철1호선 개통(서울 고동학생들 안양으로 내려와 영화 관람 함)
- ▲ 1976년 04월28일 안양 이씨, 안양 김씨, 안양 손씨 어인이 3명에게 족척(族譜) 승인
- ▲ 1977년 안양대흥수(사망 103명, 실종 17명, 이면인 9,439명)
- ▲ 1996년 11월 11일 안양시장, 안양시의회와 평등한 신도시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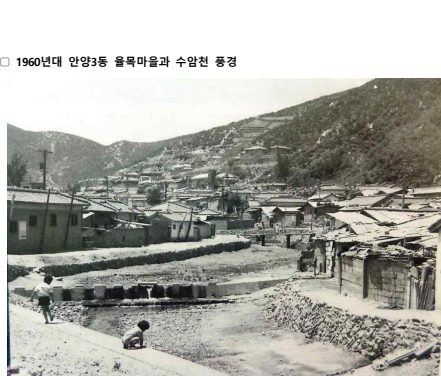
경부선 철길 아래 자갈 캐면 병목안 채석장 철길 이야기

일제 강점기 경부선 복선화공사가 진행될 무렵인 1934년 안양역에서 병목안까지 철길이 놓이고 안양9동 수리산 자락의 커다란 산 하나가 파헤쳐졌다.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서다.
해방 이후에도 철도청은 1980년대까지 수도권 일대에 건축용 골재로 제강하기 남포(다이아마이트)를 터트려 산을 깨뜨렸는데 이곳을 병목안 채석장이라 불렀다. 당시 병목안에는 전국에서 모인 등 캐는 사람들이 삼삼오문은 물론이다.
1주일에 두세 차례 철도운반 화물열차를 운행했는데 당시 새마을에 실린 이들은 열차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다가 화물차 댐 뒷간에 몰래 배설로 오곤 했다.
또 동네 아이들은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철도 레일에 못을 놓아 기차가 지나간 후 남작해진 못을 갈아 연필 깎는 칼로 쓰기도 했는데 학교에 가져가면 최고로 인기였다.
해방이 닫겨 있던 열차 채취용 화물열차 운행은 1980년 초반에 완전히 중단되면서 철길은 도로도 확장돼 사용되고 철길에 놓여져 있던 레일이 철거되더니 아스팔트에 묻히고 만다.
안양시는 대구포 골재 채취로 산 한쪽이 흉칙하게 깎여졌던 채석장 부지에 대해 2004년부터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해 인공폭포, 잔디광장, 사계절정원 등을 갖춘 가족단위 휴식공간인 안양 병목안시민공원(총 면적 101,238㎡/30,624평)을 조성했다.
기역과 추적으로 남아있던 철길은 2002년 무렵 안양9동 장파로변 금음아파트 옆 천변에 있는 단곡주택가 뒤쪽에서 약 100여미터 구간이 발견된다.
이곳에는 2014년 무렵만 해도 나무림쪽은 물론 철도레일, 레일연결부위, 쇠못, 쇠관 등 1930년대 철길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누군가 묻어가면서 많은 것들이 없게졌다. 뒤늦게나마 이를 알게된 안양시가 2016년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해달라는 안내판을 현장에 세웠으나 역사적 의미를 지닌 대부분의 흔적들은 이미 없어진 후의 뒷바라지.



- 5 -

1960년대 안양3동 율목마을과 수암천 풍경



▲ 1960년대 안양9동 새마을 올라가는 길 옆 개천(수암천)의 풍경으로 사진 오른쪽이 현재 율목2교와 한울마을도시계획 주차장 주변이며 사진 중앙의 개천 건너 뒷쪽의 산자락 아래가 과거 율목동이라 불리었던 율목마을로 현재의 율목주공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이다.

사진에는 안보이지만 어린이들 린쪽 뒷쪽으로는 안양역에서 병목안채석장까지 놓여진 철길이 있었고, 자갈차가 한때 정도 다닌 경도의 도로 양으로는 삼길안미륵과 한국아트제지(현재의 프라자아파트, 1986년 신축)가 있었다.
사진속 동네는 수암천변을 '피난촌'이라 부른다. 피난민, 혹은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평강에서 온 피난민들을 집단 거주시키면서 붙여진 지명이다. 주민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이곳에 정착하게 된다. 평강이 휴전선 이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7년 안양 대수해 당시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으로 7월 8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불과 4시간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해발 110m의 노적봉(현재 안양에고)이 있는 곳으로 산봉우리를 갈라 학교 부지를 만들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천변에 살던 8가구 29명이 몰사(沒死) 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피난민들이 수해로 인해 어이없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할 곳이다.
당시 사진속 오른쪽에 보이는 천변의 관각집같은 집들은 화천으로 쫓겨져 내려가는 임정남 고향에 부시치고 파괴되고 떠돌아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안양시 최초로 정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업을 통해 노적봉역 율목마을에 1999년 율목주공아파트(안양동 969-1, 2000년 입주, 339세대)가 들어서 지금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 1970년대 안양3동 병목안로와 수암천과 채석장 철길



▲ 1970년대 안양3동 병목안로의 풍경으로 새마을쪽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찍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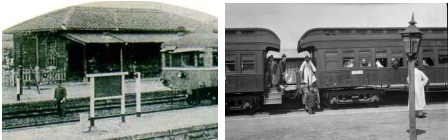
사진 오른쪽은 당시 삼길안미륵과 한국아트제지(현재의 프라자아파트, 1986년 신축, 안양역 뒤에는 한국목수제지-한국제지가 있었음)가 있던 것으로 오른쪽에 살짝 등장 경문이 보인다.
착고하신 원필선 어르신 구술에 의하면 해방이후 이 자리에는 미군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미군부대는 수리산 정상(술기봉)에 있는 봉신대를 운영했다. 수리산 봉신대는 석수동에 있던 미군부대가 이전하기 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 운운하다가 한국군이 인제받아 단발기 중계소를 운영했는데 제 어릴적 기억으로는 수리산 정상에 1개 분대 정도가 근무했다. 현재는 가래한 규모와 공군기지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 왼쪽으로 수암천을 따라 철길이 보이는데 안양역에서 병목안채석장(현재의 병목안시민공원)을 연결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앙 경문양으로는 계을 건너 관각집 동네(현 율목 주공아파트 방향)로 들어가는 차랑이 지나갈 수 있는 콘크리트로 만든 독방다리가 있었는데 이 곳은 60~70년대 동네 주민들의 빨래터이자 동네 아이들의 맥 감는 물놀이 장소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소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던 곳이었다.



- 6 -

안양의 근대 발전을 가져온 안양역 개설

□ 근대도시 안양의 출발점 안양역(1905-1938-1956-1974-2001)



▲ 1968년 안양역, 1906년 9월 안양역 풍경 독일인 헤르만 구스타프 테오도르 산더(1868~1945)

나의 고향은
금평열차가
서지 않는 곳
원구아,
눈리 오리끼든
삼동계차를
타고오며
- 김대규 시인의 열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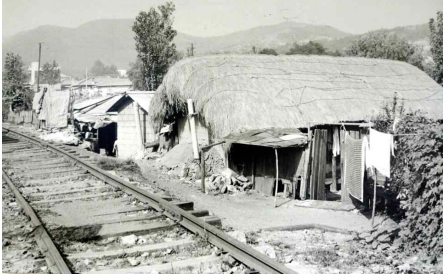
경부선 개설과 함께 1905년 1월 1일 문을 연 안양역은 2001년 12월 14일 최신파시스의 민자역사로 탄생했으며 전동차를 포함 시야차로, 무궁화호, 화물열차 등이 경유하고 있으며 하루 출퇴근시간대만 최대 4만여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양역 측은 집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양역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을까?

□ 1970년대 초 수암천 양지고 부근 풍경



안양 수암천을 가로지르는 양지교는 수리산에서 병목안과 안양9동, 안양3동, 안양역을 지나 안양천으로 흘러드는 수암천의 다리로 현재의 안양CGV에서 서울쪽으로 30여미터 떨어진 곳으로 80년대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뜯어내고 있다.
사진 우측 하단 전봇대옆에 살짝 보이는 것처럼 당시에는 안양역에서 병목안 채석장엔 철길이 놓여져 있었다. 1주일에 두세차례 자갈을 잔뜩 실은 화물열차가 지나갈때만 도로위에 차들이 쭈을 늘어섰다. 다리 건너 반대편에는 안양역에서 금성방직(대우 안양공장) 안으로 연결되던 철길이 있었다.

□ 1960년대 말 병목안 병목안 철길과 조가집



- 7 -

100년 전 안양역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독일인 헤르만 구스타프 테오도르 산더(1868~1945)가 1906년부터 1년여간 러일전쟁의 흔적을 조사하는 여행길에 기차가 정차한 1906년 9월의 ‘안양역 풍경’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난 과거를 되짚어 보게 한다.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시장에서의 ‘독일인 헤르만 산더의 여행’전에 전시되었던 안양역의 풍경은 안양지역의 오래된 모습으로 격변기를 살았던 당시의 전조들, 풍속, 역사적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다.

안양역이 처음 생긴 것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자 보행역으로 영업을 개시한다. 부원현의 경부선 1구간 역 중 하서면 안양역에 개설된 역사의 명칭이 공교롭게도 하서역도 병행해도 아닌 안양역으로 결정된 것이다.

안양역이 개통되기 이전엔 안양지역의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는 호계사거리였다. 당시 서이면 사부소가 현 호계도시권 인근에 있었으며 조선시대부터 군포장이 안양,군포,의왕,과천,안산,고양, 시흥 등의 중심지 역할을 하다가 안양역이 개통되면서 지역경제와 행정의 중심이 안양으로 이전하고 이때부터 호계리와 군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지역대표성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발전하는 안양리에 그 자리를 내준 것이다.

특히 안양천의 풍부한 수량으로 안양에는 섬유와 제지공장이 들어서고 일본인들이 대규모 농장(요기농장)도 만들고 이때 부리 토도농사도 시작한다.

1898년 군포 교통에서 안양리로 시집 온 고 강주희(1883년) 여사도 시집을 당시 안양행 궁 주변으로 길들이 심어 제에 붙들었다고 일파문치린 말한 것을 2005년 말 최고한 고 장배운(1921년생, 전 안양시시장추진위원장) 용이 정권에 중언한 바 있어 안양역 개통이 근대 안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안양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더불어 기차열을 운행 할때의 거가한 역사가 설치되었다가 역사의 노후로 1938년 8월 공사비 4만원(당시금액)으로 건물 88평형 목조콘크리트 스텔치식으로 착공하여 2개월만인 10월 21일 경으로 신축 낙성식을 가졌으나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1월 26일 1.4후보 당시 완전 소실된다.

그 뒤 안양역사는 세번재로 1956년 6월 17일 공사비 1천3백여만원(당시금액)으로 건물 95평형의 준강철였는데 뽕 위 사선지붕 아담하고 예쁜 건물이었다. 가운데 출입문을 통해 역사로 들어서면 오른쪽이 큰 나무의자들이 놓여진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곳이었고 왼쪽으로는 표를 파는 창구가 있었는데 사진 왼쪽에 남겨 보이는 곳이 사무실이었다.

1974년 8월 15일 전철개통과 동시에 신상역사를 증설했다.

현재의 안양역은 지난 2001년 12월 13일 민자역사 개통식을 갖고 제2안철대 다음날인 14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안양민자역사와 철도청이 모두 1천100여원을 들어 안양1동 88의1 일대 2만8천47㎡ 부지에 지난 95년 착공해 지하3층 지상9층 규모로 현대식 복합건축물로 LG건설이 시공했으며 역무시설은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693㎡ 규모로 시민 편의를 위해

□ 1970년대 수암천 빨래터 풍경



▲ 어린이들이 빨래하는 곳은 현재의 율목2교 앞

현재의 수암천은 당시에는 물이 풍부해 동네 주민들이 빨래를 할 정도였다.

□ 1960년대 수암천 삼영하드 공장앞 아나바다리



▲ 60년대 삼영하드보드공장

당시 수암천에는 아나바 다리, 시멘트다리 등 여러 다리들이 놓여져 있었다. 삼영하드보드 공장은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내륙목재회사 였으며, 해방이후인 1961년도에 건립되어 안양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장 이전한 후 성원아파트가 신축되었다.

- 8 -

대합실과 개찰구,승강장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역무시설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 골프인 스팅, 문화센터와 769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8천14㎡ 규모의 부대건물이 2004년 완공됐다.

한편 안양에는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여동들이 되던 안양물결(옛 안양유원지, 현 안양예술공원)으로 불리는 피서처들이 많았다. 1960~70년대에는 안양역에서 안양유원지까지 운행하는 미니 합승버스가 있었는데 배터 없는 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역 앞 광장에 줄지어 서다가 마유 급한 이들은 안양유원지까지 걸어서 가는 것이 다반사로 안양역에서 석수동 방향으로 철길을 따라 건다가 안양유원지 입구 안양철교를 건너야 했는데 철교다리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 냇물에 아찔아찔했다.

또다른 지름길도 있었는데 안양역전에서 철길을 따라 건다가 현재의 양명고 앞에서 나무다리를 건너 안양천을 넘고, 안양기독교박물관(현 좋은집) 정문앞을 지나 안양유원지 초입인 현재의 지하차도 옆 골프장으로 나오면 아이스크림 리어카, 시원한 물에 담긴 칠성사이다 노점상이 반겨주었는데 이곳에서 터미와 감자를 잠시 식했다 안양출장으로 가기도 했다.

구절에 의하면 안양역사 자리는 본래 마나리밭으로 역사 건설 당시 이곳에서 미역이 발견되어 안양역앞으로 옮겨놓았다가 광복이전에 다시 용화사(현재의 본래화점 자리)경내로 옮겨졌으며 그래서 용화사를 일명 미역당으로 불리웠다.

안양 철로건축사 최승환 교수 제공의 자료

1. 1905 간이역 개통 발명
2. 1939.8 복선으로 신축 88평 중앙합각
3. 1951.1.26 대륙과 1952년경 임시복구역
4. 1956.6.17 95평
5. 1974.8.15 전철역 개통시 석역 건축
6. 2001.12.13 민자역사 역은 하이테크 디자인 설계



▲ 2004년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8천14㎡ 규모의 건물 완공

□ **1968년 안양을 시찰 안양역 로터리 통경**



▲ 1968년 시흥군 안양읍 시절의 안양역 로타리요 당시 안양 착수동 미군부대(83보급대)에 전령소로 근무했던 닐 미살로프의 슬라이드 필름으로 찍은 사진

사진 우측의 시외버스가 있는 곳은 시외버스정류장으로 뒤편에 폭포수다방 건물이 걸린 건물은 70~90년대 안양에서 유명했던 대영장카바레였는데 1996년 대지면적 2천741㎡ 부지에 지하8층 지상 12층 규모로 연면적 3만8천400㎡대형 현대코아 빌딩을 짓다가 IMF를 맞아 시흥사가 부도가 나면서 끝으로 윤민재 20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안양의 대표적 흉물로 눈발을 싸주리게 하고 있지요.

사진 중앙에 보이는 도로는 안양역에서 CGV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멀리 삼덕역시 골짜기(현 삼덕공원)이 보이고 사진 좌측 건물에는 경남여관, 금강다방, 유성사, 현대양육원 등의 간판이 보입니다.

당시 안양역전에는 다방들이 많 않았지요. 폭포수다방이 시외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카바레 손님들이 많았던 태극당 옆 지하의 아네모네 다방은 이름 만방이나 추억들을 많이 남겼고, 승극다방은 소상사공원이 모이는 길옆지 었다고 하고, 역전다방은 안양역에서 만남을 갖는 이들이 많이 찾았지요.

그 때 다방에서는 평화차 제1일 비싸게 팔렸고 아침에 마시는모닝 커피에는 어김없이 달게 난을 넣어 왔는데 저녁에는 '티'라고 하면서 양주를 한 잔씩 넣어 팔기도 했지요.
사진에 보이는 3층 건물은 당시 2층에 옥상에 가건물을 지은 3층이었는데 지금은 3층으로 더 포도밀링에 준제하고 있으며 그 옆의 4층 건물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나 골조는 50년이나 된 건물이라 할 수 있지요.

- 13 -



□ **1980년대 초 안양역과 한국제지 안양공장 주변**



▲ 내이버에서 안양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사진으로 1980년대 초 안양역과 역앞 로터리의 풍경

사진 중앙은 안양역, 사진 윗쪽은 서울 방향으로 도로변에 시거밀집 보이는 곳이 연탄공장, 안양역 우측에 보이는 곳은 1958년에 설립된 한국제지 안양공장의 모습이며, 안양역앞으로 서울~수원간 1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 중앙의 시계탑이 세워진 원형 로터리에서 좌측길 (삼천각동 방향) 초입에는 당시 유명세를 날렸던 대영장바레 건물(현 윈스케이 부지)이 보이고 로터리 왼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과 그 위에 수평양이 로프고 있다.
사진 좌측 아랫쪽에는 안양 1번교로 들어가는 골목길도 보인다.

당시 안양역은 1호선 전철과 함께 한양철학과 무궁화, 통일호가 간혹 정차하던 아주 단순한 역이었으나, 2002년 2만8,04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의 민자역사와 롯데백화점(현 만곡동 자리)이 들어섰다.

이 뒷면(사진 우측)에 보이는 한국제지 안양공장은 탄력제와 등에 쓰이는 고급인쇄용지, 특수지, 특수지를 생산하던 곳으로 당시 인근에 사는 학생들은 하얀 아뜨지를 예뻐지로 사용하기도 했지요. 이 곳은 부지 면적만 8만여평에 달하고 종이 운송을 위해 공장안으로 철길까지 놓여져 있었는데 1998년 문을 닫고 삼정건설에 매각돼 1천8백가구의 조합아파트로 분양되면서 2002년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 **1968년 겨울 안양읍내 풍경(1번국도 주변)**



▲ 1968~69년 안양 착수동 미군부대에 근무하던 닐 미살로프가 찍은 안양시내의 겨울 모습
아이들 얹은 아구머니, 보따리를 든 아구머니, 해군을 상징하는 흰 모자를 쓴 군인, 꼬모를 쓴 학생 등 옷차림들이 이제쯤기만 하다.

일본식 이중집과 천호백집, 사범사사 김성경, 대서소, 역전철물상의 등이 있는 것을 볼때 현재의 당시 서울과 수원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길이었던 1번 국도로 안양역에서 200미터 남쪽의 안양시절(시대동/구시강) 들어가는 길목(현 안양1동 비산철길국도)의 비스경류상으로 보인다.

이 도로(현 만안로)는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출발하여 평안북도 신의주시까지지를 잇는 대한민국의 종축 국도 중 하나로 길이가 매우 길고, 국도 최초의 국도 1호선이다. 이 도로는 조선 정조 임금이 한양에서 수원 화성까지 동행차를 위해 닦아놓은 시종로이며, 도로가 지나는 전 구간이 1914년 이전의 사통군 영역이기도 하다. 이 도로는 안양 호계동 삼거리에서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였던 삼남대로와 합류하는데 이 지점이 옛 골포장이 있던 곳이다.

과거 "신작로"라 불리던 새 도로는 일제강점기 대부분 조선 시대의 도로를 사용하였으나, 여러 구간에서 이전의 도로망을 버리고 새로 조성하였다. 이는 일제가 기존 도읍 사이의 지리적 관계보다는 적진 도로를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이렇게 놓인 1번 국도를 이용하여 서울-이북 구간은 만주 침략의 이용도로, 호남 구간은 정벌된 땅의 운송도로 사용하였다.

1번국도로 불리우던 안양 만안구 구간의 이 도로는 1980년대 경수산일도도가 새로 놓여지면 시 1번 국도로 불리우던 형세를 넘겨주고 그 이후 간선도로로 격이 낮아지면서 만안대로 불리운다.

- 14 -



▲ 다른 사진 몇 출처 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76636&cid=40942&categoryId=32190>

□ **1970년대 중반 무림의 안양역사**



▲ 1970년대 중반 무림의 안양역사와 그 앞의 풍경

역사 출입문 앞과 건물 주변에 대한 조경 공사가 한창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왼쪽에 남아 한양이 길가는데 그 옆으로는 지붕을 커운 형태의 휴게소가 있어 전화기가 귀했던 시절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 장소로의 역할을 톡톡히 했지요.

□ **1970년대 초 안양역 앞 풍경**



▲ 1970년대 초 안양역 앞 풍경의 모습

안양역 지하사가 건설상 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바닥 다지기 공사를 하고 있네요. 사진 위쪽 건물은 당시 장바구니를 들고 총 출어 오신 분들이 많았던 대영장카바레(안양역 앞 흉물이던 현대코아-윈스케이 자리).

- 15 -

□ **1978년 5월 안양역 광장의 거리질서 캠페인**



▲ 1978년 5월의 안양역 풍경으로 안양시의 거리질서캠페인에 세바을 등 민간단체와 관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원돼 플렌카드를 들고 거리를 순회하고 있는 모습

1960년대에는 읍민전(안양극장-현 다이스) 앞이 선거유세, 켈기대회 등 각종 집회와 읍내 행사의 장소였는데 1976년 무림 안양이고 사거리까지만 개설됐던 도로(현 중앙로)가 안양대학교 놓여지고 착수동삼거리까지 도로가 뚫린 이후 안양역 광장에서 다중 집회가 자주 열렸지요.
사진을 보면 당시 안양역 광장은 지금의 원형 광장과 달리 화단 분리대가 중앙에 있고 역 앞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으며 역 앞이 지금보다 더 넓어 당시 역 앞을 통과하는 1번 국도(현 만안로)의 도로 개발에 더 충실했으며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던 시절입니다.

사진 정면의 상가 건물들은 지금도 현존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유단학 화장품 광고판이 세워진 건물에는 현재 안양대학교 홍보 광고판이 올려져 있으며 좌우 주변의 건물들도 겹모양과 내부 시설만 바뀌었을 뿐 대부분 60~70년대 건물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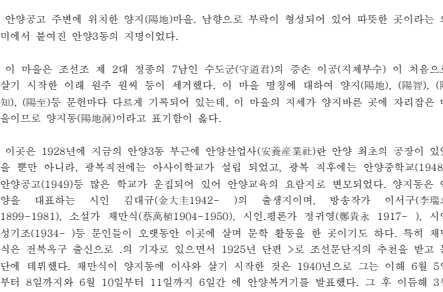
상가 건물에 부착된 간판을 보면 추억이 담긴 공간들이 제법있지요. 사진 정면 왼쪽 건물은 당시 태극당 제과점으로 안양에서 가장 오래되었던 빵집은 아니지만 60년대 부터 문을 열었으며 학생들과 젊은 남녀들이 테이트브린 공간으로 여류들은 아이스케יק과 하드를 만들어 태극당 아이스케이크통 들은 학생들이 읍내를 돌며 "아이스케이크나 하-드"를 외치며 돌아다니면서 팔았지요.

역 광장 주변에는 다방도 많았지요. 역전다방은 안양역에서 만남을 갖는 이들이 많이 찾았고 폭포수다방은 대영장 카바레 옆 손님들이 은밀히 만나는 장소였는데 평화차와 제1일 비싸게 팔렸고 아예에 마시는 모닝 커피에는 달게난을 넣어주었고, 저녁에는 '티'라고 하면서 양주 흥내를 낼 도라치위스키(혼합 제제주)를 한 잔씩 넣어 팔기도 했지요.

- 16 -



□ **1984년 안양역과 택시승강장 풍경**



▲ 1984년의 안양역 풍경으로 당시 역사 건물은 1960년대 지어진 건물

포니 택시가 보이는 택시 승강장앞으로 승객들이 많네요. 뒷쪽의 골목이 있는 곳은 안양1동 한국제지(현 삼정테마파크터) 이고, 사진 좌측 윗쪽으로는 연탄공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안양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에 개통되자 보통역으로 명명을 개시합니다. 부연하면 경부선 1구간 역 중 하서면 안양리에 개설된 역사의 명칭이 공교롭게도 하서역도 명학역도 아닌 안양역으로 결정된 것이지요. 이때부터 로제리와 군포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지역대표성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발전하는 안양리데 그 자리를 내줄겁니다.

안양역은 역사의 노후로 1938년 8월 공사비 4만원(당시승객)으로 건널 88평에 목조콘크리트 스트레치로 4차로하여 2개월만인 10월 21일 정오에 신축 낙성식을 가졌으나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1월 26일 1.4후퇴 당시 완전 소실됩니다.

그 뒤 1956년 6월 17일 공사비 1천3백여만원(당시승객)으로 건널 95평의 준공하였고 1974년 8월 15일 전차개통과 동시에 신상역을 준설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는 여흥들이 되던 안양물결(현 안양예술공원)으로 놀러오는 피서객들이 많았습니다.

1960~70년대에는 안양역에서 안양유원지까지 운행하는 당시 몇대 없는 미니함버스도의 환게로 중 시있기에 저런 피서객들이 끊어지 안양물결까지 갔지요.

이당시 철도청은 안양유원지 입구(현 전철 권면분화철 설치자리)에 임시역을 개설하였으며 당시 열차에서 내린 수 많은 인파가 길가면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 20 -

□ 안양3동의 인물 - 김대규 시인

“나의 고향은 금행열차가 서지 않는 곳. 친구아, 놀러 오려거든 삼동객차를 타고 오렴.”
- 김대규 시인의 열차 -

문학과 고향을 사랑해 안양을 삶과 문학의 어머니의 고향이라 말하고 있는 ‘사랑의 방패’ 김대규(74) 시인은 1960년 고교 제학시절 시집 ‘열의 유형’으로 등단해 고향인 안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작품 활동을 해온 한국문단의 중견시인이자 안양지역 문화예술계 어른으로 아호는 ‘문왕(文王)’이다.

평생 안양을 사랑하고 추의 문학, 농민의 문학에 상징적인 시인으로 지방문단을 벗어나지 않고 읍골계 지역에서만 활동해 온 김대규 시인은 1942년 4월 안양시 안양3동 양정말에서 태어나 오직안양에서만 살며 후학을 지도해 온 향토시인으로 60년대부터 출판 문학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안양지역에 문학의 혼을 불어 넣었고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장본인이자 산 증인이다.

안양초교와 안양중, 안양공고와 연세대 국문과, 경희대학교원 국문과를 졸업한 김 시인은 1960년 시집 ‘열의 유형’으로 문단에 등단해 안양대학교교사, 한국문인협회 안양시지부장과 경기도지부장, 안양삼공회의소사무국장, 예총 안양시지부장, 시하서론 주간, 현대시인협회 중앙위원, 새신선문 대표이사, 안양시민신문 발행인·회장 등을 역임했다.

□ 안양3동의 인물 - 박두진 시인

박두진 시인은 1916년 안성에서 태어나 1998년 9월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는데 젊은 청년시절인 1942년부터 1950년까지 안양3동에 거주하고 안양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시 창작과 종교 생활을 하는 등 안양과 연고가 있었음을 아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박시인은 1939년에 ‘문장(文章)’을 통해 등단한 후 1942년 8월에 일가록 5인이 안양으로 이주하고 금융조합의 사무원으로 취임했다. 1944년 8월에 안양중앙교회에서 일가록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에 귀의했으며 박 시인은 열심히 활동해 1947년 11월에 장로에 장립되었다. 1947년 말부터는 안양 4동에 있는 삼덕재지 사무관으로 근무했는데 6.25전쟁 직전인 1950년 초 가족이 서울로 이주하면서 안양과의 인연도 끊어진다.

□ 안양3동의 인물 - 채민식 소설가 외

1938년 <조선일보>에 ‘탁류’를 연재하는 등 일제강점기에 풍류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전북 군산의 대표적 작가인 채민식이 1940년 이곳으로 이사와 살다가 1941년까지 살았을 때 당시 이곳에서 살던 해기를 쓴 안양북가거<安養北居記>가 채민식보에 발표되기도 했다.

그 외 방승호가 이사구(李壽衡1899~1981), 시인,평론가 정귀영(鄭貴永 1917~), 시인 성기조(1934~)등 문인들이 살며 문학 활동을 했다고 한다.

- 21 -

□ 1977년 안양 대수해·안양3동 율목마을 매몰 현장



▲ 1977년 안양대수해 당시 안양3동 율목마을(현재의 율목주공아파트 자리)의 피해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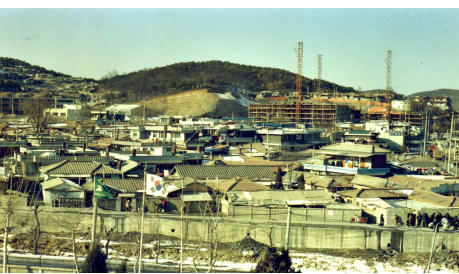
수암천의 범람으로 천변에 있던 집들은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뒷산 밑에 있던 집들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흩더미에 매몰되어 주민이 죽는 등 당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다.

안양 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지금도 안양 대수해, 안양 대홍수, 향일(77)년 대홍수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1977년의 집중 호우는 7월 8일 밤부터 9일까지 단 하루만에 내린 강우량이 무려 454.5mm로 기상청 창설 이래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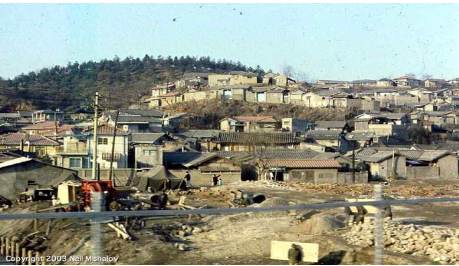
당시 안양 원도심은 마치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붓는 듯한 물폭탄과 해일처럼 밀려드는 물살에 잠긴 수중도시가 됐다. 9천4백39명의 수제민과 사망,실종 257명 재산피해 1백85억에 이르는 유례없는 참사를 빚었으며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등의 제방이 유실되었고 안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안양대교는 교각이 주저앉았고 안양시내와 비산동을 연결하는 수부두지 다리는 끊기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났다.

또 삼성산과 관악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거대한 바위와 흙이 쏟아져 안양유원지(현 안양 예술공원) 계곡은 치참하게 파괴되고 안양천 등 하천변에 자리한 각종 공장들도 침수돼 기계와 원자재들이 부유물들이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 1970년 중반의 안양3동 풍경(연성대학교 건축 공사가 한창, 사진 앞쪽이 수암천)



□ 1969년 초 무렵의 안양3동 풍경.



사진을 찍은 곳이 연성서초교, 왼쪽이 연성대학교 부지

- 22 -

□ 1977년 안양 대수해·안양3동 율목마을 매몰 현장



□ 1977년 안양 대수해·안양3동 율목마을 매몰 현장



□ 1977년 안양 대수해·수암천 피해 복구 현장(안양공고 입구)



▲ 1977년 안양대수해 당시 안양3동과 세마울의 수암천변의 피해를 복구하는 현장 모습

사진은 현 안양공고 앞으로 안양공고 학생들이 수암천변의 쌓인 부유물을 치우고 청소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사진 오른쪽에 보이는 공장은 삼덕제지(현 삼덕공관)이고 멀리 보이는 다리가 양지3교로 당시 수암천이 지금보다 꽤 넓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양 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지금도 안양 대수해, 안양 대홍수, 향일(77)년 대홍수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1977년의 집중 호우는 7월 8일 밤부터 9일까지 단 하루만에 내린 강우량이 무려 454.5mm로 기상청 창설 이래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당시 안양 원도심은 마치 양동이로 물을 쏟아 붓는 듯한 물폭탄과 해일처럼 밀려드는 물살에 잠긴 수중도시가 됐다. 9천4백39명의 수제민과 사망,실종 257명 재산피해 1백85억에 이르는 유례없는 참사를 빚었으며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등의 제방이 유실되었고 안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안양대교는 교각이 주저앉았고 안양시내와 비산동을 연결하는 수부두지 다리는 끊기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났다.

또 삼성산과 관악산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거대한 바위와 흙이 쏟아져 안양유원지(현 안양 예술공원) 계곡은 치참하게 파괴되고 안양천 등 하천변에 자리한 각종 공장들도 침수돼 기계와 원자재들이 부유물들이 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 23 -

조선직물-조선비행기-금성방직-대농-주먹가-맹리단길 이야기

□ 1932년 안양 양정말에 건립한 조선직물



▲ 1932년 안양 양정말(현 안양3동 대농단지)에 건립한 조선직물 주식회사의 조간도

안양은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등 곳곳의 하천으로 풍부한 수량과 맑고 깨끗한 물로 오래전부터 금속공장 특히 섬유와 제지공장이 많았으며 시냇을 거슬러 일제강점기로 가면 안양3동에는 조선직물과 비행기 생산시설이, 박달문에는 9개 부락주민을 내쫓고 만악과 만주로 부터 오가는 물자를 저장하던 군유저가, 안양9동 병목안에서는 경부선 철도 복선화 가설을 자갈 채취를 위해 제석장을 만들고 운반용 레일을 가설하는 등 군사기지가 다름 없던 곳이다.

지금도 안양 대농단지와 불리우는 현재의 안양3동 국민은행 안양지점과 왕궁예식장 뒷편에서 박물관 우성아파트에 걸치있는 꽤 넓은 지역으로 함으로 사안이 많은 곳이다.

이 지역에는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조선직물주식회사와 조선건직 등 섬유공장이 들어선다. 일제가 공업유수를 찾아 전국를 돌을 조사해 본 바, 이 지역에서 채집한 안양천의 수질이 최상이라는 판정을 얻어 섬유공업이 들어선다. 못바는 안양이 안양의 풍부한 노동력과 경부선 철길이 놓여져 서울에 인접한 교통상의 장점이 고려된 결정이었다.

조선직물은 1932년 최원(崔元)의 대원경원 공방장(宮坊倉)과 이두송(伊豆松) 계열의 공익사(公益社)가 합자하여 설립한 열계공방 회사로 이곳에서는 옷감 염도의 공복을 생산했다. 담장의 길이가 실리나 될 만큼 그 규모가 거대했으며 안양역에서 공방일까지 철길이 놓여질 정도도. 주요 시설이었다.

이후 이 곳은 비행기 생산기지가 바뀐다. 1938년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화신비행장 충수였던 박흥지에 의해 1944년 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이다.

□ 1977년 안양 대수해·수암천 피해 복구 현장(안양3동)



□ 1977년 안양 대수해·수암천 피해 복구 현장(세마울 입구)



- 24 -

조선비행기주식회사의 설립과정은 박흥식에 대한 반민특위 공소장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1944년 3월경 박흥식이 일본에 직접 가서 기술과 자재의 지원을 요청하고 중일전쟁 폭발일인 7월7일 항공제조사업 허가서 제출하는 등 전쟁 막바지에 군수품 생산을 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때는 태평양전쟁이 절정단계에 이르렀을 때임에도 일본의 항공전력 증대를 목적으로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설립허가를 총독부와 일본내각에 제출하고 수차례 일본을 다니는 끝에 설립허가를 받은후 10월 2일 자신이 대표가 되어 주식을 공모하여 설립에 나선다.

박흥식은 인근 토지를 몰수하는 등 조선총독부 힘을 빌려 집중해 비행기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생산시설은 조선군사령부 병참부의 중개로 만주 관동군의 지원을 받았는데 공장 노동인원은 전적으로 당시 시흥군일대에서 징용자들이 자출되었다고 한다.

박흥식은 1944년 8월19일 자본금 5천만원(당시화폐)으로 조선직물주식회사를 흡수해 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당시 규모는 부지 3만평에 건평 1만평으로 초대형 규모다. 조선비행기주식회사 설립에는 인근 토지를 몰수하는 등 총독부 힘을 빌려 흡수해 비행기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생산시설은 조선군사령부 병참부의 중개로 관동군의 지원을 받았는데 공장 노동인원은 전적으로 당시 시흥군일대에서 자출된 징용자들이 대부분이지요.

이 때는 태평양전쟁이 절정단계에 이르렀을 때임에도 일본의 항공전력 증대를 목적으로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 설립허가를 총독부와 일본내각에 제출하고 수차례 일본을 다니는 끝에 설립허가를 받은후 10월 2일 자신이 대표가 되어 주식을 공모하여 설립에 나섭니다.

조선비행기주식회사의 설립과정은 박흥식에 대한 반민특위 공소장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1944년 3월경 박흥식이 일본에 직접 가서 기술과 자재의 지원을 요청하고 중일전쟁 폭발일인 7월7일 항공제조사업 허가서 제출하는 등 전쟁 막바지에 군수품 생산을 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가 기록한 서울6백만사의 ‘조선비행기공업’과 화신그룹 등의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 흔히 박흥식이 안양에 건립한 조선비행기주식회사에서는 전투비행기 시제품 생산했을뿐 일 제제당으로 비행기는 생산하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1945년 5월 당시 제1회의의 주익(主翼)·동체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마치고 8월에 시형비행을 하였으며, 제2회기도도 부분품 제작중에 있었으며 9월말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

또 박흥식은 자신이 경영하던 광신산업학보를 조선비행기공업학보로 개편, 비행기 기술공을 양성하려 했던 사실도 조사과정을 통해 새로 밝혀지는 등 실제로 전쟁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안양에서의 비행기 양산계획 제초제회는 거의 완성단계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평은 당단에는 비행기 완주도 시작했건 것으로 드러나는데 등 비행기 양산계획 제초제회는 거의 완성단계로 들어 전쟁이 계속됐다던 아미도 안양은 일제의 전투기지가 됐을 것이나 공장 시설은 총복 이후 전주한 미군에 의해 모두 파괴되고 만다. 함고로 당시 이 공장에서는 건축가 김중업씨가 일했다. 한국 전이후 안양유원지 초입의 안양사(중조사) 자리해 유유 안양공장을 설계하여 건축하고 지금 그 공장이 김중업박물관이 된 것을 보면 안양과의 인연이 깊다.

- 28 -

조선직목 설립자는 카카이 효자부묘(高孝仁三郎)이다. 초기에는 일본인들이 의해 경영되었으나, 조선인은 감사로 박속적인 참여하고 있었다. 1934년에 100만원의 자본금 중에서 37만 3750원을 출납하였고, 1938년에 79만 1250원을 출납하였다. 2만주의 주주와 133명의 주주가 참여하였으며, 1940년에 자본금 100만원을 모두 출납 할 정도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직물주식회사는 1944년에 동양방직주식회사 안양공장과 함께 정발되어 조선비행기주식회사로 전환되어 비행기 제작에 활동하기도 하였다. 화산성 장악터에 박속은 해방을 맞은 1944년 8월 19일 자본금 5만만원(당시화폐)으로 이곳에 부지 3만평에 건축된 1만평 규모의 초대형 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한다. 일부 기록에는 1944년 5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6월 부터 일부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직원이 650명, 공원이 약 1700여 명일 정도로 규모가 컸다.

조선비행기주식회사 설립에는 인근 토지를 몰수하는 등 총독부 힘을 빌려 집주세 비행기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생산시설은 조선군사령부 병참부의 중개로 관동군의 지원을 받았는데 공장 노동인원은 전적으로 당시 시흥군일대에서 차출된 장용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때는 태평양전쟁이 절정단계에 이르렀을 때임에도 일본의 항공전력 증대를 목적으로 조선 비행기공업주식회사 설립허가를 총독부와 일본내각에 제출하고 수차례 일본을 다녀온 끝에 설립허가를 받은후 10월 2일 자신이 대표가 되어 주식을 공모하여 설립에 나선다.

조선비행기주식회사 설립과정은 박속에게 대한 반민족의 공소장에 중앙지정 기속되어 있는데 1944년 3월경 박속식이 일본에 가서 기술과 자재의 지원을 요청하고 중앙지정 복발일인 7월7 일 항공제조사업 허가서 제출하는 등 전쟁 백마지에 군수물 생산을 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시가 기록한 서울86백년사의 '조선비행기공업'과 화산그룹사 등의 지난 기록들을 살펴보면 흔히 박속식이 안양에 건설한 조선비행기주식회사는 전쟁비행기 시제품만 생산했을뿐 일 제때달고도 비행기는 생산하지 못하고 그만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반민족주의 조사위원회 따르면, 1945년 5월 당시 제1호기의 주역(主役)동력을 유지 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마치고 8월에 시험비행을 하였으며, 제2호기기도 부분품 제작중에 있었으며 9월말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박속은 자신이 운영하던 정신심리학회를 박속에게서 구입하고자 개관, 비행기 기술공을 양성하려 했던 사설도 조사과정을 통해 제2차 밝혀지는 등 실제로 진행에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안양에서의 비행기 완성계획도 제2차계획은 거의 완성단계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축가 김중업계는 1948년11월 10일 경찰방직을 설립한 김성근

해방 이후 정부 귀속 기업체가 된 비행기생산장장은 1944년 10월 경찰방직을 설립한 김성근 (양흥그룹 창업자)에게 몰락되어 방직회사로 다시금 변모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김성방씨가 전소자와 김성근은 UNKRA원조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강방직 공장 재건에 나섰으며 제법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는 1956년 5월15 일 안양15 현 진중야포드에 자리한 태평양방직을 인수하는 등 공장 확대에 나선다.

김성방씨는 1968년에 대한농산(對農 朴成邦)에 인수된 이후 1973년에 주식회사 대농(大農)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1977년까지 운영하다가 1977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해 일일예 배कारी에 안양에서 첫번째 대대로 주택단지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이곳을 명리단길이라 부르지만 오랫동안 대농단지로 불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명리단길 표지석



▲ 2023년 8월23일 23일 오후 안양3동 명리단길 입구인 국민은행위 사거리에서 열린 '명리단길 역사 안내 표지석' 제막식.

안양시 만안구장 만농누리협의회에서 새운 '명리단길 역사 안내 표지석'은 안양시 만안구의 문화 유산 발굴-계승을 위해 2022년 구정에 처음 구성된 민간협의체인 <만농누리>에서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해 태평동판에 담은 것으로 지난 7월 동판 제작에 들어간 후 7주일에 걸쳐 표지석이 완성됐다. 안양3동 대농단지에는 1932년 조선직물주식회사, 광복 직전인 1944~145년에 조선비행기주식회사, 1948~1968년 금강방직, 1968(1972)~1976년 대한농산양장공장, 1977년 택지분양과 함께 2층 양속집 형태의 단독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대농단지로 불리왔으며 이후 2020년부터는 명리단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명리단길이란 안양3동 대농단지제 감성 및, 카페들이 이어졌다는 골목길을 말한다. 최초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기지 국군 제정관련의 첫 명칭인 정리단길에서 따른 정리단길을 시작으로 송파구의 송정리, 당동읍 명리단길, 연남동 정리단길에 이어 안양에도 이->리단길' 열풍이 분 것일텐데, 안양에서 사할들 사이에서 이 기리가 '대농단지'로 불리던 곳이었어서 원문은 배제를 통해 대농을 명으로 하여 '명리단길'로 소개된 이후부터 불리지고 안양에게 되었다.

기부 문화 근원지가 된 삼석제지와 삼석공원

					
"공장을 경영하면서 43년간 민지와 소출을 내뱉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미안하다 생각했는데 안양시민들에게 돌려주는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의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가볍습니다." - 이재준 삼석제지 회장 -					
					
<p>안양 삼석공원은 안양시 원도성 한복판에 자리한 5000여평 규모의 1961년부터 인체유체 제조공장을 운영해온 삼정원(三鼎院 故 조세훈 회장) 2003년 7월 30일로 헌터(당시 시가)의 공장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며 시에 기증한 기부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p> <p>삼석제지 자리에는 일제강점기 당시인 1941년 일본인 근로주가 설립한 삼정제지가 있었는데 일만 종이류의 제조 및 가공 판매, 제지업 관련 부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자본금은 49만 원이었으며 최초 12만2500원이 출납되었는데 모조지 생산에 주력했다.</p> <p>경정원은 사장 이하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삼정제의 설립 후 일제 패권 시화자의 경영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내용을 잘 알기 어렵다. 패배이 되면서 일본인이 떠나고 삼정제지는 귀속기업체로 미군정에서 접수되었고, 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정부에 이관되었으나 출전 직전인 1953년 6월 경정원으로부터 조경창(街町長)에게 174만 원에 불하된다(안양시 연표에는 1945년 11월 25일 설립, 총미 확언해야 할 사항) 조경창은 회사명(三鼎院)을 삼석제지(三鼎製紙)로 바꾸고, 윤로파(UNKRA) 원조자금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여 모조지와 산지지를 생산하는 등 본격적인 경영을 시작하였으나 회사 운영은 순탄하지 않았고, 1950년대 말에는 경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p> <p>결국 1961년 조경창은 개성 출신의 전제순(全在淳)에게 경영권을 넘겨 이후 2003년 삼정원 부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경영을 지속하였는데 삼석제지는 신문회사와 함께 국내 제지업계의 양대 축이었던 백성지(白成紙) 생산 분야의 선구기업으로 자리잡았다.</p> <p>삼석제지에서는 공장 수확권으로 종이순회지가 흘러나왔고, 갈수기에는 삼석제지 아래쪽 하천이 이 흘러지로 뒤덮일 지경으로 오염되기도 하였으나, 모든 물자가 귀하던 1960년 이전에는 인근주민들이 이 흘러지로 빨간옷을 쓰기도 했었는데 명복안 길길과 천원 측방은 물론 인근 집 등 바깥에는 순조지인 물리는 풍정이 펼쳐졌다.</p> <p>삼석제지는 2003년 7월 폐업한다. 기업주인 전제순 회장은 11월 3일 공장부지를 공원으로 만들 것을 조건으로 당시 300여대의 공장부지(1만6,008㎡)를 안양시에 무상 기부한다.</p> <p>하지만 안양시는 당초 기증자인 전 회장에게 보존재단으로 약속했던 골목을 일방적으로 철폐하고 부지 활용의 하나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하다가 2007년 52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근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등 삼석공원 조성공사에 착수해 기증 6년만인 지난 2009년 4월22일 개장식을 갖고 시정에게 개방했다.</p> <p>한편 황해도 개성 출신(1923.6.15-2010.10.12)인 전제순 회장은 2003년 삼석제지 기부에서 이어 올랐는데 2004년에는 삼경관대에 경기도 포천시 의왕읍의 약 36만평(당시 시가 50여 원)을 기부하는 등 기업외 기부문화 불 조성에 앞장섰던 최후의 개성상인으로 불리며 있다.</p> <p>안양시는 2008년 10월 3일 안양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전제순 회장에게 명목시정관을 수여했다. 이는 안양시의 80번째 명예시민이며 내대인으로 처음이다.</p> <p>또 2014년에는 고 관제순 前 삼정원회 회장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3일(등기 이전한 날)을 '안양시 기부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p>					

1920~30년대 안양에서 열린 '전국 부인 발품기 대회'

日八十二

(日曜木)

時報

第三

二日

禮拜

기독교의 발전

바울의 보매치

영광교회

일주

영광교회

대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영광교회

사라진 안양의 옛 동네 지명

가운대밭(杆村)	갈미(葛山)	골안(谷內)
골안(谷內洞)	교하동(橋下洞, 教化洞)	구문포(舊茅浦)
구름마루(九龍洞)	구름동(雲谷洞)	귀인(貴仁)
금성마을(金星村)	꽃섬이(花峯洞, 華島洞)	남부동(南部洞)
능굴(陵谷)	능굴(陵谷)	달안이(達安洞)
당바촌	당섬이(堂山院)	덕고개(德峯)
덕천마을(德泉洞)	동수암(東秀岩)	동원(東園)
원말(源末)	마장골(馬場洞)	말쑤덤(馬曹洞)
일말골(仁葛谷)	영학동(映鶴洞)	미죽골
인배기(仁伯記, 辰伯洞)	박날미(外葛山)	방죽말(房祝洞)
벌말(蓓村)	벌터(蓓村)	방고개(房峯洞)
반목안(後鵝院洞)	부림말(富林洞)	분굴(陂洞, 富谷)
별말(別村)	삼막골(三幕洞)	삼봉마을(三峯洞)
삼봉마을(常峰洞)	새마루	산말(巖村)
섬모루(島隅)	섬터말(島末洞)	섬터말(島末村)
석수동(石手洞, 石水洞)	선니골(仙尼谷)	소물안(小谷洞)
소농골(小農谷)	수목재지(林谷洞, 林川)	시매동(市宅洞, 普市場)
신말(新村)	신촌(新村)	신호미(新湖洞)
안골(安谷, 內谷)	안날미(內葛山)	안말(安村)
양지동(陽地洞)	연현(延峯)	오촌말(奧村洞)
웃박말리(上博達里)	흘목동(嶺木洞)	인덕원(仁德院)
군내동(軍內洞, 漣安)	주갈동(住捷洞)	중앙동(中央洞)
찬두물(呑泉洞)	장막골(莊幕洞)	송조부(松朝府)

남부동 시대동 중앙동 석수동 양지동 장내동 교하동 냉천동 소골안 주립동 덕천마을 골안 명학동 능굴 병목안 장박골 당바촌 구름마을 삼막골 벌터 신촌 범고개 붓골 박달리 등 과거 안양에는 정겨운 이름으로 불리우던 고유 명칭이 있었다. 동네 이름은 1973년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안양 12.3.---9동, 석수1.2.3동 등 멋없이 숫자로 일괄을 세워 획일화 시켜버렸고 3동은 9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위치 또한 뒤죽박죽이다. 또한 1990년 인구 증가에 따른 분동 과정에서 행정관의주의적으로 동 명칭을 만들었다. 안양 시 내 전체 31개 행정동 중 석수1~3동, 관양1~2동 등 숫자 나열식으로 된 행정동이 22개로 전체의 70퍼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순수 우리말로 불리우던 동네 지명을 일제강점기 당시 한자로 풀어내면서 그 의미가 적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옛 지명은 나름의 뜻과 고유의 이름을 지닌 특별한 것이고 독특한 특색대로 풍기는 맛 또한 제각각으로 그 시절 불웠던 동네 이름을 떠올리면 그 시절이 오뎀오뎀 되상아난다.

안양시는 최근 옛 지명을 살린 행정동으로 동 명칭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있다.

2024년 1월1일부터 석수3동이 춘촌동으로 관양1동디 관양동으로. 관양2동이 인덕원동으로 바뀌었다. 명칭 변경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한 것으로, 안양시의 행정동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의 옛 흔적과 숨은 이야기들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씨앗! 동네와 골목에 숨은 이야기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과 동네의 이야기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눈여겨 볼 것이 오랜 세월 지역이 간직하고 이어져 왔던 문화유산에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입니다.

- ▲ 전국에서 최고의 명승으로 교과서에도 기록되었던 안양포도를 재배한 사연.
- ▲ 안양에 비행기 조립공장이 있었고 2호기까지 생산했던 이야기
- ▲ 안양 광천에 비행장이 설치될뻔한 이야기.
- ▲ 안양 막달동이 왜 군용지라 불리우고 지금도 군사지역인가.
- ▲ 안양에 방직공장과 제지공장이 많았던 사연.
- ▲ 안양 양명고교 앞에서는 드림하우스 만든 흑백가 건너 다녔다.
- ▲ 안양2동 줄은길(보목원)과 양명고에는 50년이상 된 건축물이 남아 있다
- ▲ 안양 만안구 앞대는 밤나무 밭. 1930년대 전국 부녀자 밭 짓기 대회가 매년 열렸다.
- ▲ 여류시양화가 나혜석은 1947년 안양2동 안양보목원에 머물며 자서전을 썼다.
- ▲ 골목들이 사라진다(맛데리골목/ 향아리골목/ 변전소길/ 금정골목/ 한복골목)
- ▲ 현재의 안양교는 당초 그 자리가 아니다
- ▲ 중초사지에서 발굴한 금동불상 전설은
- ▲ 아시아 유일의 보물급 마애종과 그 지붕
- ▲ 안양록 - 사이먼사무스 - 진귀한 원형 맞아?
- ▲ 안양8동 영학마을에는 박정희 대통령 지음한 향가와집이 있었다
- ▲ 안양9동에는 일제 강점기 높아진 재석정 칠집이 있다. , 그대로 두었더라면...
- ▲ 안양6동 소망파출소 양루는 전국에 몇개 남지 않은 것중 하나다
- ▲ 안양1동 진흥파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석수했다는 나무가 있다
- ▲ 안양 효계동 효성 진달래 독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 ▲ 수암천의 발원지는 과연 어디일까 - 효향이 우물?
- ▲ 마을 주민들은 수리산의 태을봉을 태왕봉이라 불렀다
- ▲ 안양 비산동에는 기록에도 없는 탑 하나가 있다
- ▲ 안양예술공원(안양유원지)에는 안양 최초의 카바레 원형이 남아있다
- ▲ 안양예술공원 하천 바닥에는 일제 강점기에 조성한 표지석이 있다
- ▲ 안양 삼성산에는 폐광된 장석광산이 잠자고 있다
- ▲ 안양 당배촌에는 50년전 임업시험장 사택(한옥)이 폐허로 남아 있다
- ▲ 안양 당배촌에서 백자 가마터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다
- ▲ 안양 수리산 정상 아래에는 군인들이 마시던 오래된 물탱크가 있다
- ▲ 안양 당배촌에는 아직 무당이 굿을 하는 곳당이 있다
- ▲ 안양 당배촌에는 한국전쟁시 중공군이 마을 숨겼던 동굴이 있다
- ▲ 백범 김구선생 안양을 지나가다
- ▲ 100년전 3월31일 군포장 독립만세운동 시작 지점은 안양 효계동(구군포)이다
- ▲ 관대루자사의 돌팔매질은 안양에서 발생한 최초의 항일운동이다